

## I. 교환 파견 동기

저는 5학년 1학기인 초과 학기에 파견을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졸업 전에 해외에서 수학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한국 밖의 넓은 세계가 정말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또, 구글 검색창에서 접하던 것들을 실제로 접하고 나면 제가 스스로 결정지은 한계보다 사실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효능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졸업 시기를 늦추는 것은 값싼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파견대학 리스트에 정말 많은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을 세워 후보를 소거해나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일단 반 년 정도 머무르는 곳인 만큼 제가 즐겁게 있을 수 있는 곳이면 했습니다. (1)한 번도 안 가본 도시일 것, (2)여행해보고 싶은 곳이 가깝거나 버킷리스트와 맞닿아 있을 것, (3)공부해보고 싶었던 분야를 배울 수 있을 것-관심 있는 교수님, 학교 커리큘럼, 수학 분위기 등. 이 기준들에 맞춰 리스트를 지워나갔고, 결과적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토론토라는 도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2. 파견대학/지역 특징

토론토대학(University of Toronto, 줄여서 UofT or UT)은 캐나다에서 손에 꼽히는 명문 대학입니다. 1827년 설립되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입학이 쉽고 졸업이 어려운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인술린 최초 개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론토대학은 St. George, Mississauga, Scarborough의 3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St. George 캠퍼스는 다운타운에서도 더 중심지에 위치하는 토론토대학의 메인 캠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리

토론토는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주의 주도로,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토론토는 북미 오대호 중 하나인 '온타리오 호'의 북쪽 연안에 접해 있는, 땅에 경사가 거의 없는 도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서울대의 경사만을 경험해왔던 사람에게 토론토대학의 편지는 신선한 충격일 것입니다. 평평한 땅을 따라 격자 모양으로 도로와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쪽 뺨은 길을 편하게 거닐며 이곳저곳 구경하고 도시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도시입니다.

### 기후와 시차

시차는 우리나라와 14시간 차이가 납니다. 여름과 가을이 짧고 겨울이 길며, 대체로 청명, 건조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정말 많이 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가을 학기(Fall semester, 9월~12월)에 파견을 다녀왔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주로 활동했던 9~12월에는 주로 건조하고 푸르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눈은 1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눈발로 고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보통 1~2월에 가장 춥다고 합니다.

## 문화와 치안

토론토는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다문화 도시입니다. 영화 <Turning Red(메이의 새빨간 비밀)>에 잘 드러나 있듯, 토론토는 한국, 중국, 아시아, 일본 등 아시아계 문화는 물론 세계 각지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멜팅팟입니다. 특히 길거리 식당/식료품점/미용실 등 한국계 편의 시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종 구성도 매우 다양합니다. 덕분에 인종차별을 당할 위험이 크지 않으며, 치안 역시 좋은 편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상냥합니다("sorry"를 얼마나 들었는지...) 하키 응원할 때 빼고는 모두 상냥하다는 내부 유머가 있습니다.

토론토는 생각보다 좀 더 고풍스럽고, 좀 더 힙하고(?), 조금 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분위기가 참 다릅니다. 온타리오 호수와 붙어있는 항구 쪽은, 어디까지나 호수지만 그 어마어마한 크기 덕분에 물씬 바다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 다운타운에 진입하면 고층 건물이 즐비한 대도시 풍경이 펼쳐집니다. 또 대조적으로 다운타운 외곽으로 흘러가면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등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와 복닥복닥한 음식점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일변합니다. 그

외에도 아무리 걸어도 1~2층짜리 마당 딸린 단독주택들만 보이는 구역, 거대한 자연을 닮은 초록빛 공원 등... 각양각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한데 모인 대도시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으레 떠올리는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고층빌딩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문화적 배경에서 우러나오는 느슨함이 멋진 도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Turning Red>의 배경.

토론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엿볼 수 있다.

아시아 문화권의 상점들, 토론토의 유명한 교통수단인 스트릿카가 공존한다.



##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 1. 비자 신청 절차 (study permit / eTA)

6개월 이상 수학 예정일 경우 study permit이 필요한 반면, 6개월 미만으로 수학 예정일 경우 study permit은 필요 없고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만 따로 발급하시면 됩니다(2023년 기준).

저는 한 학기 파견, 즉 6개월 미만 수학 예정이었기 때문에 study permit을 발급하지 않고, eTA만 발급받았습니다.

예외적으로, (1)6개월 이하 수학 예정이지만 추후에 교환 학기 연장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2)SIN을 발급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은 study permit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굳이 study permit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정말 많고, 바이오메트릭스 등으로 인해 돈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study permit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Acceptance letter가 오자마자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Study permit 발급에 약 7주에서 운이 나쁘면 2달까지 걸리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토론토대학의 CIE(Center for International Experience, 서울대의 OIA와 유사한 기관)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internationalexperience.utoronto.ca/international-student-services/immigration/studying-in-canada/#accordion-you-will-be-studying-in-canada-for-less-than-6-months>

또, 아래 사이트에서 비자 신청 의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는 수시로 바뀌니 꼭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study-permit-tool.html>

이렇게 eTA를 발급 받고 나면 꼭 홈페이지와 수신된 메일 화면을 출력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 경우 인천공항, 토론토공항, 중간에 경유한 미국 공항의 3곳 모두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eTA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또, 여정에 미국 경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ESTA 역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 2. 숙소 지원 방법

5월 경,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임무는 역시 숙소 찾기였습니다. 토론토대학의 기숙사는 이용료가 비싸기도 하고 한 학기 교환학생은 잘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파견이 확정된 학생이 자율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토론토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대략 3가지 루트로 정리됩니다.

1	교내 기숙사	선발되기 어려움
2	교외 기숙사	Tartu College, Harrington, Campus Co-op, Campus One 등
3	기타	룸렌트(월 CAD700~1000) ⇒ 아래 참고 사이트에서 미리 구하거나 ⇒ 파견 2주 전쯤 미리 가서 현지에서 발품 팔기  참고 사이트 ● Kijiji ● Craigslist ● UofT Housing ● 캐스모 카페 (핀치역 인근 한인민박이 주)  고려사항 ● 학교와의 거리 ● 가격 ● 치안: Victoria park, jane and pinch, sherbourne 지역 등 피하기

저는 가장 대중적인 Tartu College에 신청했지만 Waitlist 처리가 되어, 급히 다른 길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Kijiji에서 룸렌트를 물색했습니다. 룸렌트란 남이 사는 아파트에서 방 하나에 세 들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Kijiji에서 Sparrow라는 룸렌트 매칭 사이트(<https://www.sparrowshare.com>)를 알게 되어 방문했는

데, 처음 보는 사이트여서 반신반의했지만<sup>1</sup>, 면밀히 따져본 결과 믿을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본 결과도 만족스러웠습니다. Sparrow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엄격한 신원 검증을 거치며, Sparrow 관리자가 집주인과 저 사이에서 계약을 중재해주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플랫폼에서 식성, 취미, 성격 등의 개인 선호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집주인과 예비세입자를 매칭해주기 때문에 입주 이후의 생활도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Sparrow에서 집주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방 뷰잉 일자를 조정했습니다. 뷰잉은 한국시간 기준 밤 10시(토론토 기준 아침 9시)에 화상 통화로 진행했습니다. 뷰잉 전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집 규칙, 시설, 어메니티에 대해 물어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노스 토론토 지역(다운타운으로부터 도보 1시간, 버스 20분 정도 소요)에 방을 구했습니다. 다운타운에만 머물면 파견 내내 다운타운에만 있을 것 같아서, 집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구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생활 반경도 자연스럽게 넓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통학은 감내해야 했지만,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

교내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견교에 내야 하는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개강 전에 UHIP이라는 의료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는데, 이때 258불 정도 든 것 외에 큰 지출은 없었습니다.

### 4. 기타 유용한 정보: 항공권 구매

항공권은 파견이 확정되고 나서 바로 물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스카이스캐너 어플에서 주기적으로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파견일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크게 뛰니 미리 빨리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가격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당히 합리적이다 싶으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항공권 구매 경로는 주로 (1)특정 항공사의 홈페이지, (2)스카이스캐너 등 대행사, (3)KISES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도 (3)KISES는 국제학생증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학생 프로모션을 주로 해주는데, 주로 수화물 추가 무료나 캐나다 국내선 할인 코드 등이 포함됩니다. 국내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저는 이중에서 (1)특정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가장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00투어와 같은 대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혹여나 미래에 일어날 변동사항이나 차질에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중개 수수료도 있고요.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캐나다를 각각 활용했는데 둘 다 준수했습니다. 특히 에어캐나다의 경우 비행기 지연이나 수화물 문제 등 좋지 않은 평을 많이 들어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출국 날짜는 개강 1~2주 전 정도로 잡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강 1주 전인 8월 마지막

---

<sup>1</sup> 2022년에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룸렌트 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을 정도로, 룸렌트 시장에는 사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룸렌트 주인이 (1)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만 보여주고 안심시키거나, (2)제3기관 개입 없이 이메일로만 서류를 주고받기를 요구하거나, (3)첫달, 마지막달 외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주의하세요.

주에 토론토에 도착했는데, 학교와 동네도 둘러보고 숙소에 짐도 풀고 이것저것 할 시간이 넉넉해서 좋았습니다.

**귀국 날짜**는 1월 초로 잡았습니다. 이는 공식 종강 일정으로부터 2주 뒤였는데, 종강한 이후에 여행을 다닐 시간이 충분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표를 **왕복/편도**로 살지도 고민이 많았지만 일단 왕복으로 구매했습니다. 왕복이 편도보다 훨씬 더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종강 후 여행 일정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귀국 비행기에 맞춘다는 생각으로 임했고, 귀국까지 차질은 없었습니다.

**비행 서류**로는 전자항공권, eTA, (미국을 경유할 경우) ESTA, 학비 완납 영수증, 백신접종증명서(국문+영문), UofT 입학 허가서, 예약한 숙소의 정보와 숙박비 결제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 IV. 학업

##### 1.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은 CIE에서 진행합니다. 교환학생은 구글폼을 통해 수강신청을 진행하며, 수강신청 포털을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견 확정 이후 메일을 꾸준히 확인하시다가, 어느덧 CIE에서 메일이 오면 첨부된 구글폼에 수강희망과목 3~5개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이 아니기에 정해진 기한 안에만 보내면 되며, 제출 횟수도 1~3차까지 여러 차례 있어서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도 인기 있는 강의가 금방 차는 건 어느 학교나 동일하니 꼭 듣고 싶은 게 있다면 웬만하면 1차에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의 범위가 넓습니다. 학과에서 열리는 과목뿐만 아니라 단과대(Faculty) 안에서 열리는 과목들을 대부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culty of Arts & Science 소속이었던 저는 심리학과 과목들뿐만 아니라 미술사학 과목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강신청 전에 강의계획서(syllabus)를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강의 편람 홈페이지에서 강의 시간과 장소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강신청할 때 구글폼에 선이수 과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UofT는 선이수 기준이 매우 촘촘한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사 교과목으로 선이수를 채웠다는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수업을 듣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강의계획서의 진행 내용 부분을 영어로 번역하여 간략하게 서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강신청이 늦어서 강의 정원이 다 차버려도, waitlist가 있는 과목의 경우 전체 정원의 10% 안에 들면 개강 후 1~2주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인 강의에서 waitlist 10번 안에 들었다면 수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1차 수강신청을 놓쳐서 모든 과목이 waitlist에 들어갔었는데, 개강 후 두 번째 수업부터는 모든 과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수강신청을 할 때 참고한 체크리스트입니다.

1. Restriction를 확인했는가? - Enrolment Controls

1. 교환학생 restriction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특히 computer science 300~400 수업은 수강 불가)

2. [참고] 약어 해설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 U of T - Learning and Safety Abroad](#)

- Priority (**P**): Some students are given priority access until a specific date.
- Enrol at Department (**E**): Students must contact the academic unit that offers the course to request permission to enrol.
- Department Approval Required (**A**): Approval from [academic unit](#) required for enrolment
- Department Approval Required, Some Student Groups have Priority (**AP**): Approval from academic unit required for enrolment, some student groups have priority access until a specific date.
- Department Approval Required, Course is Restricted (**AR1**): Approval required from academic unit for enrolment, course is also restricted to specific student groups.
- Department Approval Required, Course is Restricted Until a Specific Date (**AR2**): Approval required from academic unit for enrolment, course is also restricted to specific student groups until a specific date after which another group of students will be able to request enrolment.
- Restricted (**R1**): Course/section is restricted at all times for specific students.
- Restricted (**R2**): Course/section is restricted to a group of students until a specific date, after which time another group of students is also able to enrol.

2. Prerequisite선이수를 확인했는가?
3. 강의평을 확인했는가? - [www.ratemyprofessors.com](http://www.ratemyprofessors.com)
4. 과목 코드를 잘 확인했는가?
  1. 마지막 자리가 1인가? - St.George 캠퍼스
  2. F 과목(Fall semester)인가? - S와 Y는 내년 4월까지
  3. H 과목인가? - 0.5 credit짜리 수업
5. 기타 고려사항
  1. 사이 공강이 널널한가?
  2. 점심시간이 확보되었는가?
  3. 시작시간이 너무 이르지는 않은가?
  4. 공강일이 있는가? (여행)
  5. 장학금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가?
  6. 현장 강의 / 사이버 강의 여부를 파악했는가?
  7. 서울대에서 학점 인정이 가능한가?

##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 (1) [심리학] Mindfulness Meditation: Science & Research (Prof. Elli Weisbaum)

마음챙김에 대한 논문을 포괄적으로 읽고 토론하는 세미나 형태의 수업입니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론을 익히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 (2) [심리학] Attention and Performance (Prof. Abbey Nydam)

주의력과 수행을 다루는 심리학 수업입니다. 시험 난이도는 다소 있었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주의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패러다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3) [미술사학] Dada & Surrealism (Prof. Elizabeth Legge)

다다와 초현실주의 사조를 다루는 미술사 수업입니다.

### 3. 학습 방법

공부량은 서울대에서 공부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느꼈습니다. 단, 공부 방법은 암기뿐만 아니라 비판적 글쓰기와 서술형 문항에도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 장소는 메인 도서관인 Robarts Library와 그 Commons도 좋지만, 단과대별/기관별 도서관도 좋은 곳이 많으니 많이 탐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4. 외국어 습득 요령

틀려도 좋으니 일단 뭐든 말해보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냥 '굴러보는 것' 외에도, 스피크와 같은 AI 영어 회화 앱이나 유튜브 영어 회화 강자들이 혼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표현을 배워서 실생활에서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하니 실력이 늘었습니다.

## V. 생활

###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표준전압 멀티탭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이것저것 사용해야 하는 가전제품이 많다면(핸드폰 충전기, 노트북 충전기, 전열제품, 가습기...) 날개 돼지코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또, 양말을 많이 가져가면 좋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는 데 별도 요금을 청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1회 세탁하는 데 보통 3달러 정도 들기 때문에 세탁물을 많이 모아 한꺼번에 돌리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여분 양말이 많으면 세탁 주기를 줄일 수 있어서 편합니다. 휴대용 저울 역시 가져가면 좋습니다. 즉석으로 캐리어 무게를 잴 수 있어서 여행 다닐 때 위탁수화물 무게 초과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안심입니다. 드럭스토어는 많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상비약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크림이나 립밤은 토론토의 건조함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우선 드라이기, 고데기 등 전열제품은 free volt 제품이 아니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중고로 싸게 구매하는 것이 안전에도 캐리어 무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샴푸, 로션 등 소모품은 현지에서 구매해도 충분합니다. 김치나 김 등 한식은 Galleria, PAT 등에서 한국과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기간 첫 주치외의 식량은 굳이 싸올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2. 현지 물가 수준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싼 편입니다. 식료품 물가는 한국과 큰 차이 없지만, 외식비와 월세는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외식비의 경우 메뉴판에 쓰인 가격에 온타리오주 세금(HST: 13%)과 팁(15~20%)을 더하면 보통 저렴하면 12~15불, 적당히 비싸면 20~25불 사이가 나왔습니다.

###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 통신

한국처럼 토론토에도 여러 통신사가 있는데, 그중 저는 Phonebox를 선택했습니다. eSIM을 구매해서 캐나다 번호를 만들어 잘 썼습니다. 물리적으로 갈아끼우는 USIM과 달리, eSIM은 인터넷으로

발급된 QR코드를 스캔해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eSIM을 쓰면 단말기에 원래 쓰던 번호와 새로 발급된 캐나다 번호가 나란히 저장됩니다.

## 식당

식료품과 생필품은 (1)한인 마트(Galleria, PAT), (2)캐나다 마트(Metro) (3)천원샵(Dollarama), 그리고 (4)드럭스토어(Shoppers, Rexall)에서 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외식하려면 돈이 무척 많이 듭니다. 한국에는 천원학식, 김밥천국이 있는데 캐나다에는 한 끼를 때울 만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식당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밥을 어디에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교내에서 먹나 교외에서 먹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현지 학생들은 학식보다는 메인 거리에 줄지어 선 푸드트럭에 의지하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주로 (1)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요리해먹기, (2)Mama's Best 핫도그, (3)Tim Hortons 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저는 정말 요리를 못하는 편인데도 궁지에 몰리니 어떻게든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식재료 예산을 50CAD 안으로 잡으면, 몇 번의 외식을 합쳐 대략 400CAD로 한 달을 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애정했던 것은 Sidney Smith 건물 앞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Mama's Best 핫도그였습니다. 6~8불 정도로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자주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Tim Hortons 역시 저렴한 가격대 덕분에 자주 갔습니다. 특히 TimBit 도넛 10개들이 박스와 아이스캡 하나를 사면 가벼운 점심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은행

1학기 파견이기 때문에 현지 계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1)국내에서 카드 3개를 미리 발급해갔고, (2)현금 이체 서비스 어플을 다운받았고(한국-해외용), (3)현금을 30만 원 정도 환전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카드는 [하나]VIVA G 플래티늄 국제학생증 체크카드, [하나]VIVA X 플래티늄 체크카드(하나은행 계좌와 연동, 결제당시 환율을 반응), [하나]트래블로그 체크 마스터(하나머니와 연동, 선불식 충전)의 3개를 가져갔습니다. 주로 VIVA X를 사용했는데 정말 웬만한 경우 다 됐습니다. VIVA G와 트래블로그는 비상용이었습니다. 국내 계좌에 생활비를 넣어두고 VIVA X로 결제했습니다.

이체 어플은 MOIN을 사용했습니다. MOIN은 한국 계좌에서 캐나다 계좌로 송금할 때 사용했습니다. 룸렌트 월세를 지불하거나 캐나다 친구들과 돈을 정산할 때 외에는 거의 쓸 일이 없긴 했지만, 송금 내역이 투명하고 서비스가 빨라서 만족스럽게 썼습니다.

## 교통

토론토 시내를 포함한 웬만한 근교에는 지하철 노선 2개, 스트리트카(전차), 그리고 버스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3달러 정도 하여 비싼 편입니다.

학생 할인권인 'TTC student monthly pass'를 이용했습니다. 한 달에 약 약 CAD128을 지불했습니다. 할인권을 이용하려면 먼저 지정된 지하철 역에서 신분증, 재학증명서를 들고 가서 ID를 만들어야 합니다.



####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교내 Hart house에서는 (대개) 별도의 예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drop-in classes가 열립니다. 댄스, 요가뿐만 아니라 수영장, 헬스장 등이 무료이니 꼭 학기 초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연휴를 활용하여 여행을 다녀오기 좋습니다. 11월 초에 Reading Week가 있고, Thanksgiving 연휴나, 겨울방학 역시 여행을 다녀오기 좋은 때입니다.

여행지는 크게 토론토 시내와 토론토 외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토론토 시내:

- 토론토아일랜드: 페리나 언더웨이 건너면 도착하는 섬입니다. 여름에 가면 참 예쁩니다. 섬에서 자전거 타거나 유원지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 하키 경기: 유명한 Maple Leafs 팀뿐만 아니라 교내 하키 경기(Varsity Stadium)도 꽤 괜찮았습니다.
- AGO(Art Gallery of Ontario): 만 25세 이하라면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 ROM(Royal Ontario Museum): UofT 학생들은 화요일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 CN Tower: 토론토의 랜드마크입니다. 꼭대기 부근에 있는 식당이 360도 회전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 연극 및 뮤지컬: Ed Mirvish Theatre에서 주로 예매 가능합니다. Rush ticket도 노려보세요!
- 축제
  - 9월: 토론토국제영화제, CNE(Canadian National Exhibition)
  - 10월: Nuit Blanche(현대미술 전시, 시청을 중심으로 도시가 커다란 전시장으로 변합니다.)
  - 12월: 산타클로스 행진 페스티벌, Cavalcade of Lights, Dundas square Eaton Center에서 열리는 트리 점등식, Distillery District 크리스마스 마켓 등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습니다.

##### 토론토 바깥:

- 나이아가라 폭포: Union역에서 Niagara Falls GO 열차를 타고 저렴하게 방문 가능합니다. 당일치기도 괜찮습니다. 근처 'Niagara-on-the-lake' 지역에서 와이너리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코스입니다. 기념품으로 아이스와인을 사가면 좋습니다. 폭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카이론 타워 전망대도 추천합니다.
- 몬트리올: 베이글, 푸틴, 굴뚝빵, 파스트라미로 유명합니다. 명소로는 Joseph's Oratory, Jean Talon market이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이동할 땐 Orleans Express 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퀘벡: 시타델,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샤토 프롱트낙 호텔, 아브라함 평원, 노트르담 성당 등이 있습니다.
- 밴프 국립공원 (캐나다 로키산맥): 여름과 겨울 각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여름에 가면 에

메탈드빛 호수, 겨울에 가면 멋진 설경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가 잘 돼있어서 렌트카 없어도 여행갈 수 있습니다. 8X Express 버스, sulphur 버스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신 Calgary에 내리는 경우 Banff까지 오가는 미니버스를 구글링하여 별도로 예매해야 함 (Banff Express 등). Lake Louise, Moraine Lake, Banff Upper High Springs, 곤돌라 등을 추천드립니다.

- 옐로우나이프: NASA 선정 오로라가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높은 산이 없는 평평한 땅, 짧은 해, 북위 60도 오로라 오발 아래라는 장점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겨울 체감 기온은 평균 영하 40도입니다. 작은 마을을 이곳저곳 걸어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정말 좋았음. 미리 오로라 업체와 숙소를 예약해야 합니다. 티피(원뿔형 텐트) 안에서 기다리는 오로라 뷰잉과 차를 타고 오로라가 있는 곳으로 가는 헌팅으로 나눕니다. Bullock's Bistro에서 팬 프라이 대구 먹기, 올드타운-뉴타운 방문하기, 북위 60도 탐험 Certificate 받기, YK Shopping Centre 앞에서 기온계 인증샷 찍기, 부시 파일럿 기념기 가보기-등의 활동을 추천합니다.
- 미국 뉴욕: 비행기뿐만 아니라 버스로도 이동 가능합니다.

###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도시의 전반적인 치안은 좋은 편이지만, 밤 11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 늦은 시각 넓은 공원에 혼자 가거나, TTC를 이용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6. 기타 유용한 정보

파견교 메일 주소가 생기면 아마존 프라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 무료를 포함한 각종 프라임 혜택을 6개월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초과학기생 기준

초과학기에 교환학생을 떠나시는 경우, (1)교내맞춤형장학금, (2)해외수학장학금, (3)OIA장학금,(4)단과대 수학장려보조금, (5)국가장학금I유형[전체 8회 중 수령 횟수가 남은 경우], (6)외부장학금 등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초과학기가 아닌 학생들과 동일하게 학자금지원구간, 성적 등 선발조건만 충족하면 수혜 가능하니 한 번 지원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학사과/장학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덧으로, 초과학기생은 교환학생을 다녀올 경우 등록금을 1/3만 내도 됩니다.

1	서울대학교 교내장학금	교내맞춤형장학금	정규학기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등 선발 조건만 충족하면 수혜 가능 (2023 기준)	* 교내 성적장학금 등에 해당 * mysnu 장학선발현황에서 결과 확인
2		해외수학장학금		* 장학복지과 주관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but 금액한도 존재
3		OIA 장학금		* 교환 관련 교외/교내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4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I 유형		* 초과학기자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급 대상 X * 국가장학금 I 유형은 8회 수령 횟수를 다 채우지 않은 경우 수령 가능
5		미래에셋 등	매년 선발 요강 확인	

마지막으로, 꼭 하루하루 짧게라도 일기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교환학생을 다녀온 4개월은 제 시야를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더이상 후회할 것이 없다고 느낀 반년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인연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새로움으로 가득했던 여정을 함께 해준 많은 사람들, 그리고 OIA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